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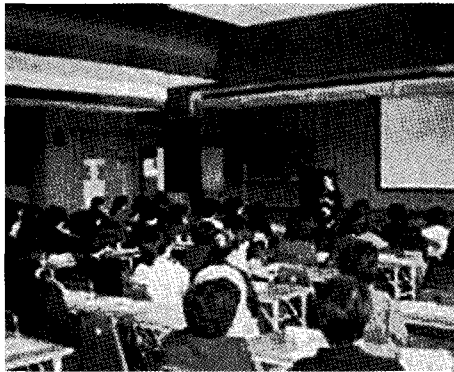
## 식품자판기 위생교육 개선 과제

식품자판기 위생교육 만큼 제도적인 허점이 큰 행정도 드물 것이다. 자판기 위생이 물론 중요하다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행정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과중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위생교육 기관과 전문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의 위

생교육은 한국휴게시설업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판기 분야의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자판기 분야와는 무관한 한국휴게시설업중앙회가 자판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은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은 해당 산업 분야의 단체에서 실시해야 효과가 높음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다류업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자판기 위생교육이라니? 어처구니없는 현재의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은 위생교육 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여야 된다는 제도적 허점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생교육의 신뢰성과 관리감독의 문제



때문에 산하단체만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초 보건복지부 산하 자판기 위생교육기관으로 활동해 오던 한국식품자동판매기중앙회가 사업영역을 잘못 확장하다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았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해야 할 교육기간이 이런 불법상

황에 휘말리다보니 급기야 단체가 해산이 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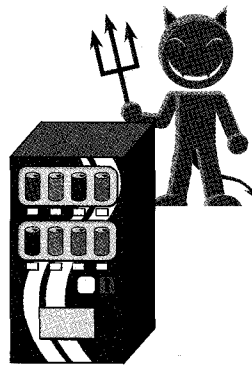
그 후, 시급히 중앙회를 대체할 위생교육 기관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한국식품자동판매기중앙회를 자판기 위생교육 단체로 지정해 버렸다. 결과적으로 자판기 분야와는 무관한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다보니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판기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생교육이 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는 '땀 빵'식 교육에 더 가까웠다. 이렇다 보니 "누구를 위한 위생교육인가" 성토할 정도로 피교육자의 교

## 정책초점 1

협회에서는 위생교육의 문제점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 건의를 진행했다. 위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판기 산업 유관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행 운영자들의 큰 불만사항으로 작용하는 과중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을 게 아니라 신규영업자의 경우에만 한번만 받게 해주길 요청했다.

육에 대한 불만은 높아져 왔고, 위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라는 과제 해결이 점점 시급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위생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교육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과중하다는 점이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자판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는 4시간, 기존영업자는 2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커피자판기를 부업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운영자까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영세 운영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일개 부업거리가 대부분인 자동판매기 운영 특성으로 볼 때 매년 위생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분명 과도한 행정규제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운영자들에게 마지못해 매년 위생교육을 받게 하기 보다는 실효성 있는 한번의 교육만으로도 충분하게 했으면 하는 게 산업계의 바램이다. 협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생교육의 문제점들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정책 개선 건의를 진행했다. 위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판기 산업 유관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행 운영자들의 큰 불만사항으로 작용하는 과중한 위생교육을 매년 받을 게 아니라 신규영업자의 경우에만 한번만 받게 해주길 요청했다.



협회의 이러한 주장과 건의가 얼마만큼 받아들여 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산업계가 실효를 느끼지 못하는 위생교육은 마땅히 개선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부처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대상

## 자판기 위생교육 관련 식품위생법률안에 대한 소견 및 개선 건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판기 산업계를 대표하는 본 협회에서는 금번 귀부의 식품위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자판기 운영자 위생교육에 대한 소견을 제출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자판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은 국회발의를 통한 법개정이 이루어진 작년부터 매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위생교육 강화의 개정취지는 급증하고 있는 식중독 및 각종 식품 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전업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들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자판기를 부업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운영자까지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영세 운영자들의 원성과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개 부업거리가 대부분인 자동판매기 운영 특성으로 볼 때 이는 분명 과도한 행정규제로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산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커피자판기는 제품 자체의 위생성 향상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어 운영자가 기본적

인 관리만 하면 별다른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커피 내용물의 특성상 설사 위생적인 관리에 소홀히 한다하더라도 식중독 같은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판기 운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운영자들은 자신의 본업을 가지고 있고 부업으로 자판기 1~2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자로, 바쁜 본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판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명분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불만만 가득해 마지못해 매년 받는 교육보다는 실효성 있는 한번의 위생교육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입니다.

본 자판기 협회는 이러한 산업계의 희망을 수렴해 현행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과거와 같이 신규운영자만 한번 받으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자판기 위생교육은 자판기분야의 직능단체가 아닌 다방업 분야의 한국휴게시설업중앙회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자판기 분야 동업종 단체에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는 게 훨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